

김현미 장관 "안전국토 조성 위해 철저한 복구·선제적 대응" 강조 - 23일 남원시·구례군 섬진강 수해현장 찾아 임시복구·복구계획 점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(월) 장마철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를 겪은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의 섬진강 현장을 방문하여, 임시복구 결과와 항구복구 계획을 점검했다.
 - 전남 구례 서시천(섬진강 지류)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섬진제(제방)는 8월 8일 설계목표를 초과하는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었으며, 현재는 임시복구를 마치고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.
- 김현미 장관은 “기후변화에 따라 올해와 같은 극한 강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, 단순한 복구가 아닌 미래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복구계획을 수립”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,
 - “국가하천 뿐 아니라 지자체가 담당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”도 함께 강조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홍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천의 설계목표 강화, 취약지점 맞춤형 대책, 주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국가 직접 관리 등 다양한 대책*을 준비하고 있다.
 - * 행안부 주관 범정부 TF를 통해 “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” 수립중
 - 홍수피해 현장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방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, 섬진제 유실의 주요 원인이었던 (구)금곡교는 철거할 계획이다.

2020. 11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